

빠른 정답이 없습니다! 각 지문별 해설에 답을 달아줬으니 그걸 참고해주세요. 지문마다 해설 페이지를 분리해줘서 다음 문제 정답을 보게 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초반부 psat 문제들은 2문제에 한 페이지씩 해설이 있습니다. psat은 2문제씩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5주차

1. 다음 글의 논지를 약화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구 곳곳에서 심각한 기후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그 원인이 인간의 활동에 있다는 주장은 일견 과학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따지고 보면 진실과는 거리가 먼, 다분히 정치적인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 “자동차는 세워 두고, 지하철과 천연가스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와 같은, 기후 변화와 사실상 무관한 슬로건에 상당수의 시민이 귀를 기울이도록 만든 것은 환경주의자들의 성과였지만, 그 성과는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볼 때 가슴 아파해야 할 낭비의 이면에 불과하다.

희망컨대 이제는 진실을 직시하고, 현명해져야 한다.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인간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때문이 아니라 태양의 활동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태양 표면의 폭발이나 흑점의 변화는 지구의 기후 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태양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면 기온이 내려간다. 환경주의자들이 말하는 온난화의 주범은 사실 자동차가 배출하는 가스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아니라 태양이다. 태양 활동의 거시적 주기에 따라 지구 대기의 온도는 올라가다가 다시 낮아지게 될 것이다.

대기화학자 브림블컴은 런던의 대기오염 상황을 16세기 말까지 추적해 올라가서 20세기까지 그 거시적 변화의 추이를 연구했는데, 그 결과 매연의 양과 아황산가스 농도가 모두 19세기 말까지 빠르게 증가했다가 그 이후 아주 빠르게 감소하여 1990년대에는 16세기 말보다도 낮은 수준에 도달했음이 밝혀졌다. 반면에 브림블컴이 연구 대상으로 삼은 수백 년의 기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두 변수의 이런 독립적인 행태는 인간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 ① 인간이 출현하기 이전인 고생대 석탄기에 북유럽의 빙하지대에 고사리와 같은 난대성 식물이 폭넓게 서식하였다.
- ② 태양 활동의 변화와 기후 변화의 양상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보니 양자의 주기가 일치하지 않았다.
- ③ 태양 표면의 폭발이 많아지는 시기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오히려 내려간 사례가 많았다.
- ④ 최근 20년 간 세계 여러 나라가 연대하여 대기오염을 줄이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률이 완화되었다.
- ⑤ 최근 300년 간 태양의 활동에 따른 기후 변화의 몫보다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좌우되는 기후 변화의 몫이 더 크다는 증거가 있다.

2. 다음 글의 논지를 강화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인간의 복잡하고 정교한 면역계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의 침입에 맞서서 우리를 지켜 주지만, 병원체가 몸 안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침입한 병원체를 제거하는 과정을 시작한다. 이 과정은 염증이나 발열 같은 적잖은 생물학적 비용과 위험을 동반한다. 인류의 진화 과정은 개체군의 번영을 꾀하는 이런 비용을 치러야 할 상황을 미리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은 인류에게 병원체를 옮길 만한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거리를 두려는 자연적인 성향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누런 콧물이나 변색된 피부처럼 병원체에 감염되었음을 암시하는 단서를 보이는 대상에 대해 혐오나 기피의 정서가 작동하여 감염 위험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위험은 병에 걸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 대상에도 있다. 기생체와 숙주 사이에 진행된 공진화의 과정은 지역에 따라 상이한 병원체들과 그것들에 대한 면역력을 지닌 거주민들을 만들어냈다. 처음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동일한 기생체와 숙주들이 분포했다라도 지역에 따라 상이한 기생체가 숙주의 방어를 깨고 침입하는 데 성공하고 숙주는 해당 기생체에 대한 면역을 갖게 되면서 지역에 따라 기생체의 성쇠와 분포가 달라지고 숙주의 면역계도 다르게 진화한다. 결과적으로 그 지역의 토착 병원균들을 다스리는 면역 능력을 비슷하게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다른 지역의 토착 병원균에 적응하여 살아온 외지인과 접촉했다가는 자신의 면역계로 감당할 수 없는 낯선 병원균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고, 이런 위험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질병의 외형적 단서들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단지 어떤 사람이 우리 집단에 속하지 않는 외지인임을 알려주는 단서, 예컨대 이곳 사람들과 다른 문화나 가치관을 가졌다고 보이는 경우 그런 사람을 배척하거나 꺼리는 기제가 작동한다. 외지인을 배척하고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결속하는 성향은 전염성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효율적인 장치였다.

—————<보 기>—————

- ㄱ. 문화와 가치체계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한 지역 간 경계가 토착성 전염성 병원균의 지리적 분포의 경계와 일치하였다.
- ㄴ. 병원체의 분포 밀도가 낮아 생태적으로 질병의 감염 위험이 미미한 지역일수록 배타적인 집단주의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 ㄷ. 특정 지역의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 실험에서 사람들은 원전사고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위험에 보편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 전염병의 감염으로 인한 위험을 평가할 때는 뚜렷한 개인차를 보였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3.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수명 연장의 꿈을 갖고 제안된 것들 중 하나로 냉동보존이 있다. 이는 낮은 온도에서는 화학적 작용이 완전히 중지 된다는 점에 착안해, 지금은 치료할 수 없는 환자를 그가 사망한 직후 액화질소 안에 냉동한 후, 냉동 및 해동에 따른 손상을 회복시키고 원래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 정도로 의학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보관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인체 냉동보존술은 제도권 내에 안착하지 못했으며, 현재는 소수의 열광자들에 의해 계승되어 이와 관련된 사업을 알코어 재단이 운영 중이다.

그런데 시신을 냉동하는 과정에서 시신의 세포 내부에 얼음이 형성되어 심각한 세포 손상이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속 냉동보존술이 제시 되었는데, 이는 주로 정자나 난자, 배아, 혈액 등의 온도를 1분에 1도 정도로 천천히 낮추는 방식이었다. 이 기술에서 느린 냉각은 삼투압을 이용해 세포 바깥의 물을 얼음 상태로 만들고 세포 내부의 물은 냉동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또한 치명적이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세포들을 손상시킨다. 최근에는 액체 상태의 체액을 유리질 상태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이용해 세포들을 냉각시키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유리질 상태는 고체이지만 결정 구조가 아니다. 그것의 물 분자는 무질서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얼음 결정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규칙적인 격자 형태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 알코어 재단은 시신 조직의 미시적 구조가 손상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최근부터 유리질화를 이용한 냉동방법을 활용 하고 있다.

하지만 뇌과학자 A는 유리질화를 이용한 냉동보존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기억이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것은 신경계의 뉴런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연결망의 총체로서의 커넥톰이다. 냉동보존된 인간을 다시 살려냈을 때, 그 사람이 냉동 이전의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뉴런들의 커넥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A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던 환자를 죽은 뒤에 부검해보면, 신체의 다른 장기들은 완전히 정상으로 보이지만 두뇌는 이미 변색이 일어나고 말랑하게 되거나 부분적으로 녹은 채로 발견되었다. 이로 부터 병리학자들은 두뇌가 신체의 나머지 부분보다 훨씬 이전에 죽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알코어 재단이 냉동보존할 시신을 수령할 무렵 시신의 두뇌는 최소한 몇 시간 동안 산소 결핍 상태에 있었으며, 살아있는 뇌세포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다.

- ① 냉동보존술이 제도권 내에 안착하지 못한 원인은 높은 비용 때문이다.
- ② 유리질화를 이용한 냉동보존술은 뉴런들의 커넥톰 보존을 염두에 둔 기술이다.
- ③ 저속 냉동보존술은 정자나 난자, 배아, 혈액을 냉각시킬 때 세포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 ④ 뇌과학자 A에 따르면, 알코어 재단이 시신을 보존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뉴런들의 커넥톰은 이미 정상 상태에 있지 않았다.
- ⑤ 뇌과학자 A에 따르면, 머리 이외의 신체 보존 방식은 저속 냉동보존술이나 유리질화를 이용한 냉동보존술이나 차이가 없다.

4. 다음 글의 ㉠을 지지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공상과학 소설가였던 허버드는 1950년에 펴낸 그의 책 다이어네틱스 현대 정신 치료학에서 하나의 정신 이론이자 정신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다이어네틱스를 제안했다. 이것은 사이언톨로지의 교의가 됐다. 그런데 ㉠ 다이어네틱스는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은 다이어네틱스의 주요 내용이다.

정신은 ‘분석정신’과 ‘반응정신’ 두 부분을 가지고 있다. 반응정신은 생각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반응정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수면상태에서처럼 분석정신이 작동하지 않을 때 감각에 입력된 내용을 뇌의 특정 부위에 기록하는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청각, 후각 등 오감을 통해 입력된 모든 것을 기록하는 아주 성능 좋은 기록기이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엔그램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머리를 부딪쳐서 정신을 잃었다고 해보자. 그때 근처에 있던 모터가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반응정신이 작동하여 이 소음이 기록된 하나의 엔그램이 탄생하게 된다. 그런데 나중에 비슷한 환경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지만 머리를 세게 부딪쳤을 때 예전에 기록된 엔그램으로 인해 주위에 모터가 없는데도 시끄러운 모터 소리 비슷한 소음을 듣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엔그램이 기록될 때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때와 비슷한 일을 겪는 느낌을 받는다. 바로 이러한 엔그램의 작용이 정신 질환의 원인이 된다. 한편 반응정신은 출생 전 태아 상태에서부터 작동하며, 따라서 인간은 이미 상당히 축적된 엔그램을 지니고 태어난다.

이러한 이론에 입각해 다이어네틱스 치료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조용한 공간에서 청취자 역할을 하는 치료사가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치료를 받는 사람의 엔그램에 접근 한다. 이 중 문제가 있는 엔그램을 치료 받는 사람의 분석 정신 앞으로 끌어내면 그 엔그램은 완전히 삭제되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된다. 정신을 망가뜨리는 엔그램들이 모두 제거된 사람은 정신적으로 깨끗한 상태가 된다.

허버드의 책이 출판된 후 약 6년 동안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치료사가 되는 훈련을 받았으며, 미국 전역의 수십 곳에 다이어네틱스 치료 센터가 세워졌다. 그리고 대부분의 센터가 이 치료방법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정신 질환을 치료했다고 주장했다.

- ① 엔그램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삭제되기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 ② 상당수의 정신 질환이 태아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 ③ 엔그램의 기억에는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록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 ④ 다이어네틱스 치료 센터는 프라이버시 보호 규정에 따라 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 ⑤ 뇌기능 검사를 통해 반응정신의 작동 결과를 기록하는 뇌 부위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1LEET

민간의 채무 계약은 법원에 의해 강제된다. 만약 기업이 채무 상환을 거부한다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 자산의 강제 매각 절차나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국가 채무의 경우는 어떠할까? 전통적으로 국가는 스스로의 동의 없이 외국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 원리에 의해 채무의 강제 집행으로부터 보호되어 왔다. 국가의 상업적 거래에는 주권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지만, 여전히 국가 채무의 이행은 법원을 통해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까닭에 많은 경제학자들은 국가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나 구제 절차가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채무가 상환되는 이유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답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의 출발은 이튼의 고전적 가설이다. 그는 GDP가 감소할 때 채무국이 해외 차입 이외의 방식으로 GDP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이 신용시장에서의 영구적인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신용시장에 다시 접근할 수 없게 된다는 위협이 채무 상황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았다.

이후 이 가설은 두 가지 점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하나는 GDP가 감소할 때 해외 차입이 총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는 가정에 대한 비판이었다. 불황에 대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할 경우에는 불황 시 총수요 유지를 위한 해외 차입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므로 신용시장에서 배제하겠다는 위협의 효과가 약화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채무불이행 시 신용시장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는 가정에 대한 비판이었다. 일단 채무불이행이 일어난 후에는 채권국의 입장에서 영구 배제보다 신용거래 재개가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증 자료도 이튼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 지난 30년 동안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국가들은 빠른 시간 내에 국제자본 시장에 다시 접근할 수 있었다. 채무불이행 이후 자본시장 접근이 배제되는 기간은 1980년대에는 평균 4년이었으며, 이후에는 2년 이내로 더 짧아졌다.

이튼 이후의 연구자들은 이튼 가설의 가정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새로운 가설을 구축하려고 하였다. 이 가설들은 대략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가설은 채무 상황의 이유를 무역 제재나 자산 동결 같은 채권국의 직접적인 제재에서 찾는다. 둘째 가설은 차입 비용의 상승 같은 신용시장의 반향을 우려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셋째 가설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국의 국내 경제에 나타나게 될 피해에 주목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증 작업은 채무불이행 이후 가해진 제재의 효과와 국내 경제적 피해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채권국의 직접적 제재 효과는 주로 무역량의 감소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다. 실제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국가들에서 무역량이 감소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하지만 무역량 감소 기간이 3~4년 정도로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무역 제재 위협이 채무 이행의 이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신용시장에서의 평판 효과는 차입 금리의 높낮이를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다. 1997~2004년의 자료에 기초한 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채무불이행 이후 1년 동안은 가산 금리가 4% 포인트 상승했지만 2차년도에는 2.5% 포인트로 낮아졌으며, 3차년도 이후에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다.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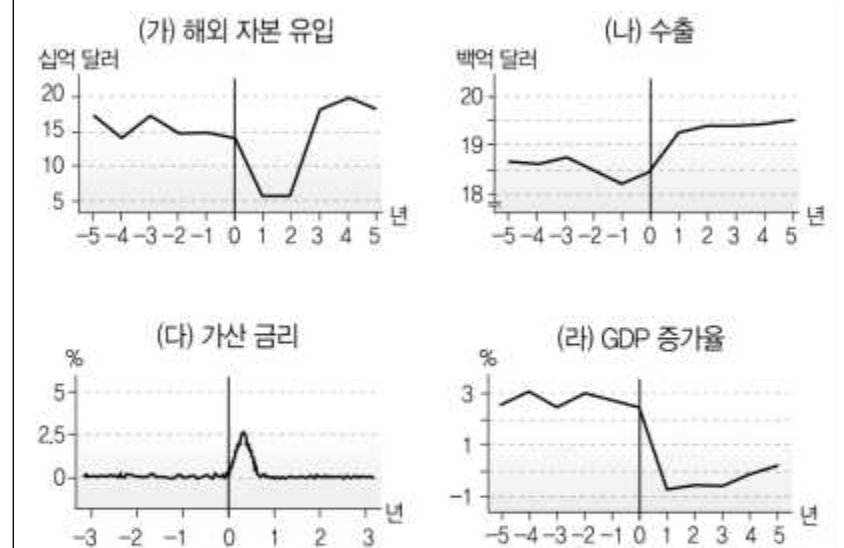
금리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빠르게 하락한다는 점에서 신용시장 평판 하락이 채무 이행의 이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끝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국내 경제적 피해 여부는 GDP 증가율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다. 최근의 실증 연구들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은 GDP 증가율을 약 0.6% 포인트, 은행 위기를 동반할 경우에는 2.2% 포인트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채무불이행 발생 1년 이후부터는 채무불이행이 GDP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시적 GDP 증가율 하락도 영구적인 손실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GDP 감소를 초래하는 구체적 경로가 밝혀진다면 이 가설의 설명력은 더 커질 것이다.

5. 윗글에 제시된 가설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가설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고 있다.
- ② 모든 가설은 국가 채무의 이행이 법적으로 강제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 ③ 고전적 가설은 신용시장에서 채무국을 배제하는 것이 채권국에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하고 있다.
- ④ 가설 중 일부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경제적인 직접 제재 수단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 ⑤ 가설 중 일부는 채무국의 신용 상태가 반영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6.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어느 국가의 경제 변수들의 추이가 아래와 같다고 할 때, 윗글의 내용에 기초하여 이를 바르게 해석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가로축의 0은 채무불이행 선언 시점을 나타낸다.

〈보 기〉

- ㄱ. (가)는 고전적 가설의 타당성을 약화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 ㄴ. (나)는 첫째 가설의 타당성을 약화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 ㄷ. (다)는 둘째 가설의 타당성을 강화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 ㄹ. (라)는 셋째 가설의 타당성을 강화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철학적 근대는 감성의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이성적 자아를 정초한 데카르트에서 출발하여, 주체뿐 아니라 객체의 세계까지도 선형적 이성의 현상태로 규정한 독일 관념론에 이르러 완결된다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시작과 끝만 보고 이 시대 전체를 이성지상주의의 단선적 질주로 일반화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왜냐하면 근대 철학의 진행 과정에는 이성의 독주에 맞서 감성에 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자 한 다양한 사조들 역시 유의미한 반대 노선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신화학’이라는 사상운동은 이러한 근대 철학의 진행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중 1913년에 발견된 후, 후일 ‘독일 관념론의 가장 오래된 체계 강령’(이하 ‘강령’)으로 명명된 18세기 말의 작자 미확정 텍스트는 단연 흥미를 끈다. 왜냐하면 이성지상주의의 결정판으로 불리는 것이 독일 관념론인데, 그 사조의 출발점에 위치하는 이 글에서는 오히려 사뭇 다른 입장이 개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글에서 강하게 감지되는 ㉠ 실러의 정치 미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세계여, 그대는 어디에 있는가? 다시 오라!” 라고 외치는 실러처럼 ‘강령’의 저자도 고대 그리스에 견줄 수 있는 충분한 미적 차원의 문화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실러의 이러한 생각은 일차적으로는 공포 정치로 극단화된 프랑스 혁명과 인간의 소외가 만연한 시민 사회에 대한 실망에서 나왔으며, 근본적으로는 혁명의 사상적 모태인 계몽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 의식에서 비롯된다. 그가 보기에, 계몽주의는 추상적 지성의 계몽에만 경도되어 인간의 소중한 정신 능력들의 조화를 파괴했기 때문에 혁명의 과격화는 필연적이다. 반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유기적 조화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의 심성이 감성과 이성의 조화로운 미분리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실러는 현실 정치 영역에서 참된 인륜적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미적 차원의 문화 건설이 선행 조건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인간 심성 자체의 미적 교육, 즉 감성적 충동과 이성적 충동을 화해시키는 ‘유희 충동’의 계발을 구체적인 전략으로 제시한다.

㉡ ‘강령’의 저자는 이러한 정치 미학적 노선을 발전시켜 새로운 신화학이라는 모델을 제안한다. ‘새로운’이라는 표현이 시사하듯, 그가 지향하는 이상은 계몽을 원천 무효화하는 신화학이 아니라 이성과 감성의 화해, 즉 신화학을 통해 참된 모습으로 변용된 계몽이다. 실러가 소망하는 아름다운 세계의 재림처럼 그가 지향하는 신화학 역시 계몽의 미적 고양을 핵심으로 한다. 더 나아가 ‘강령’의 저자는 이러한 노선을 무정부주의적 방향으로까지 극단화하여, 신화학이라는 미적 차원의 문화를 참된 현실 정치의 선행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아예 국가의 종식을 통해 이르러야 할 궁극적인 목표 지점으로 구상한다.

그러나 이렇게 미적 절대주의로까지 극단화된 노선에서 출발한 독일 관념론은 이후 사상가들이 다다른 ㉢ 그 최종판에서는 근대 초기보다도 훨씬 강화된 이성지상주의로 전환된다. 이러한 전환은 과거의 신화적 세계와 당대의 국가적 삶의 양식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서 비롯된다. 즉 근대의 정치적 양상이 이제 상실의 시대인 것이 아니라 획득의 시대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견 아름다워 보이는 고대에서는 오히려 절대 소수의 이익을 위한 절대 다수의 억압이 자행되었고, 시민 사회를 거쳐 형성된 근대의 입헌적 질서에서는 다수의, 나아가 만인의 보편적

자유가 구현된다.

이러한 정치적 입장의 근저에는 세계의 전체 과정이 자유로운 이성의 자기실현 과정에 속한다는 형이상학이 작용하고 있다. 즉 역사란 태초의 근원적 원리인 선형적 이성이 현상계에서 실현되는 거대한 과정에 포함되는 하나의 하위 범주이기 때문에, 감성이 지배하는 신화적 세계가 지양되고 이성이 지배하는 시민 사회와 국가 체제가 출현하는 것은 정당하고도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화와 같이 미적 차원에 속하는 것은 정신사의 미발견된 초기에만 인간 심성을 도야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 이성의 전진을 통해 도달한 시대에 다시 미적 이상향을 꿈꾸는 것은 계몽을 고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의 실현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7. 밑글에 따라 철학적 근대의 전개 과정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은?

- ① 이성지상주의와 그 반대 노선이 충돌하자, 양자가 각각 부분적 타당성을 지닌다는 인식을 통해 다수 이론의 공존을 용인하는 합리적 사상이 강화되었다.
- ② 이성지상주의에 대해 그 반대 노선이 도전했지만, 도전의 근거로 제시된 현상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더 강화된 이성지상주의가 등장하였다.
- ③ 이성지상주의의 부적절성이 반대 노선에 의해 입증되자, 애초의 전체에 내재한 오류의 인식을 통해 사상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었다.
- ④ 이성지상주의와 그 반대 노선이 충돌하자, 두 입장 모두의 불완전함을 인식하고 양자의 매개를 추구하는 중립적 이론이 형성되었다.
- ⑤ 이성지상주의가 반대 노선의 도전에 직면했지만, 이를 물리치고 처음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는 확고한 노선이 유지되었다.

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현실 정치를 위한 미적 교육을, ㉡은 무정부주의적 신화학을 모색한다.
- ② ㉠은 독일 관념론을 위한, ㉡은 계몽주의를 위한 철학적 기초를 마련한다.
- ③ ㉠은 계몽주의의 지속적 완성을, ㉡은 계몽주의의 근본적 청산을 지향한다.
- ④ ㉠과 ㉡은 모두 미적 차원의 문화 건설을 노선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한다.
- ⑤ ㉠과 ㉡은 모두 미적 절대주의를 통해 참된 인륜적 공동체의 건설을 추구한다.

9. ㉠의 입장에서 '새로운 신화학'을 비판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실 정치에 등을 돌리고 미적 차원을 지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근대 사회가 초래한 만인에 대한 억압을 용인하는 것이다.
- ② 역사가 진행될수록 위축되어 온 인간의 자유를 이성에 의거하여 복원하려는 것은 역사의 대세를 거스르는 부질없는 노력이다.
- ③ 삶의 근대적 양상을 정치적 차원에서만 고찰하는 것은 그 양상이 이성의 전횡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 ④ 신화학을 통해 변용된 계몽의 모델을 과거에서 찾는 것은 감성주의적 이상 실현을 위해 바람직한 길이 아니다.
- ⑤ 당대의 참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미 극복된 과거를 모범으로 삼는 것은 퇴행적 발상이다.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1LEET

음악에서 개별적인 음 하나 하나는 단순한 소리일 뿐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 음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음들은 조화로운 방식으로 결합된 맥락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맥락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음악의 기본적인 요소인 음정과 화음, 선율과 화성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떨어진 두 음의 거리를 ‘음정’이라고 한다. 음정의 크기(1도~8도)와 성질(완전, 장, 단 등)은 두 음의 어울리는 정도를 결정하는데, 그에 따라 음정은 세 가지, 곧 완전음정(1도, 8도, 5도, 4도), 불완전음정(장3도, 단3도, 장6도, 단6도), 불협화음정(장2도, 단2도, 장7도, 단7도 등)으로 나뉜다. 여기서 ‘한 음의 중복’인 완전1도가 가장 협화적이며, 완전4도 <도-파>는 완전5도 <도-솔>보다 덜 협화적이다. 불완전음정은 협화음정이라는 하나 완전음정보다는 덜 협화적이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는 수직적인 음향보다는 수평적인 선율을 중시하는 선법 음악이 발달했다. 선법 음악은 음정의 개념에 근거한 다성부 짜임새를 사용했는데, 이는 두 개 이상의 선율이 각각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선율과 선율 사이의 조화가 음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위적 개념에 근거한 것이었다. 따라서 각각의 선율은 모두 동등하게 중요했으며, 그에 반해 그 선율들이 만들어 내는 수직적인 음향은 부차적이었다.

중세의 선법 음악에서는 완전하게 어울리는 음정을 즐겨 사용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완전음정만을 협화음정으로 강조하면서 불완전음정과 불협화음정을 장식적으로만 사용했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불완전음정인 3도와 6도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16세기 대위법의 음정 규칙에서는 악보 (가)의 예가 보여 주듯이 음정의 성질에 따라 그 진행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예를 들면 7도의 불협화적인 음향이 ‘매우’ 협화적인 음향인 8도로 진행하기 전에 ‘적당히’ 협화적인 음향인 6도를 거치도록 했는데, 이를 통해 선법 음악이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음향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도-3도-1도의 진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



(나)



한편 불완전음정 3도가 완전5도를 분할하는 음정으로 사용되면서 ‘화음’의 개념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음의 결합을 두 음에서 세 음으로 확장한 것이다. 예컨대 <도-미-솔>을 음정의 개념에서 보면 <도-솔>, <도-미>, <미-솔>로 두 음씩 묶은 음정들이 결합된 소리로 판단되지만, 화음의 개념에서는 이 세 음을 묶어 하나의 단위, 곧 3화음으로 본다. 이와 같이 세 음의 구성을 한 단위로 취급하는 3화음에서는 맨 아래 음이 화음의 근음(根音)으로서 중요하며, 그 음으로부터 화음의 이름이 정해진다. 또한 이 근음 위에 쌓는 3도 음정이 장3도인지 단3도인지에 따라 화음의 성격을 각각 장3화음, 단3화음으로 구별한다. 예를 들면 완전5도 <도-솔>에 장3도 <도-미>를 더한 <도-미-솔>은 ‘도 장3화음’이며, 단3도 <도-미♭>을 더한 <도-미♭-솔>은 ‘도 단3화음’이다. 화성적 음향이 발달해 3화음 위에 3도를 한 번 더 쌓으면 네 개의 음으로 구성된 화음이 생기는데, 이것을 ‘7화음’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위

의 <도-미-솔>의 경우 <도-미-솔-시>가 7화음이다.

조성 음악은 이러한 화음의 개념에 근거해서 발달한 것이다. 수평적인 선율보다 수직적인 화음을 중시하는 양식으로 르네상스 시대 이후 등장한 조성 음악에서는 복합층으로 노래하던 다성부의 구조가 쇠퇴하는 대신 선율과 화성으로 구성된 구조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선율이 화음에 근거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평적인 선율 안에 화음의 구성음들이 ‘내재’한다.

조성 음악에서 화음들의 연결을 ‘화성’이라 한다. 말하자면 화성은 화음들이 조화롭게 연결되어 만들어 내는 맥락을 뜻한다. 악보 (나)가 보여 주듯이 조성 음악에서는 5도 관계에 놓인 세 화음이 화성적 맥락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음보다 5도 위의 ‘솔’, 5도 아래의 ‘파’를 정하면, ‘도’가 으뜸음이 되며 ‘솔’은 딸림음, ‘파’는 버금딸림음이 된다. 이 세 음을 근음으로 하여 그 위에 쌓은 3화음이 ‘주요 3화음’이 되는데, 이를 각각 으뜸화음, 딸림화음, 버금딸림화음이라고 한다. 이 세 화음은 으뜸화음으로 향하는 화성 진행을 만든다.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완전음정 <도-솔>은 완전음정 <도-도>보다 덜 협화적이다.
- ② 르네상스 시대보다 중세 시대에 협화적인 음정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 ③ 2도-3도-1도의 진행은 불협화음정-불완전음정-완전음정의 단계적 진행이다.
- ④ 장3화음과 단3화음은 근음 위에 쌓은 3도 음정의 성질에 따라 구별된다.
- ⑤ 화음의 개념에 근거한 선율만으로는 곡의 주요 3화음을 알 수 없다.

11. 선법 음악에서 조성 음악으로의 변화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음의 재료가 협화적 음정에서 불협화적 음정으로 바뀌었다.
- ② 대위적 양식에서 추구하던 선율들의 개별적인 독립성이 쇠퇴하였다.
- ③ 수직적인 음향을 강조하던 것이 수평적인 선율을 중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 ④ 화성적 맥락으로 전환되면서 3도 관계의 화음들이 근본적인 화성 진행을 만들었다.
- ⑤ “화성은 선율의 결과이다.”라는 사고가 발달하면서 선율과 화성의 구조를 사용하였다.

12. <조건>에 따라 <보기>의 곡을 작곡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조 건> —

- 선율은 '도'를 으뜸음으로 한다.
- 한 마디에는 하나의 화음을 사용한다.

— <보 기> —

3
4

별 — 이 빛 나 는 밤 에 그 — 대 빛 나 는 구 나

솔 도 도 도 라 도 파 미 레 솔 파 미 솔 솔 미 도

㉠ ㉡ ㉢

- ① ㉠의 화음에는 '미'가 내재되어 있다.
- ② ㉡에는 버금딸림 7화음이 사용되었다.
- ③ ㉢에는 딸림 7화음이 사용되었다.
- ④ 으뜸화음에서 시작하여 으뜸화음으로 끝난다.
- ⑤ 각 마디의 첫 음은 그 마디에 사용된 화음의 근음이다.

1. ①

- 약화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합니다. 그럼 강화하는 내용, 즉 화제 그 자체를 고르면 되겠네요. 이 지문의 화제는 '지구 온난화 인간 때문이라는 거 땡이고, 다 태양때문이야!'입니다. 인간 출현하기 전에 따뜻한 곳에 사는 식물이 살았다는 건 지구 온난화가 인간 때문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에 아주 좋은 내용이네요. 화제잡기!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2. ①

- 역시 논지를 강화하는 것, 화제와 직결되는 선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핵심은 '병 안 옮으려고 자기와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척했다.'라는 것이고, 이 내용은 ㄱ만 이야기하고 있네요.

3. ④

- 긍정 발문의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화제’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뇌과학자 A는 냉동 보존 기술의 유리질화 기법이 이 커넥툼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그대로 보존되는 것에 회의적이라고 했고, 이게 냉동 보존 기술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역시 또 화제찾기네요.

4. ⑤

- 이 지문은 ‘다이어네틱스’라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은 이런 다이어네틱스가 신뢰할 만하지 않다고 했고, 문제는 ㉠을 지지하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지문의 내용을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 엄청 꼬아봤지만 결국 비판 문제였네요. 이 지문의 ‘다이어네틱스’의 내용만 파악하고, 그것을 까면 됩니다.

① 삭제되는 게 밝혀지면 다이어네틱스의 기술에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다이어네틱스 자체가 엔그램을 삭제하는 치료법이니깐요. 비판을 해야하는데, 옹호하고 있으니 틀린 선지입니다.

② 태아 시절의 경험? 이것도 다이어네틱스의 주장이었습니다. 옹호하는 선지네요.

③ 역시 무의식 속에 만들어 지는 것이 엔그램이라는 것. 옹호하는 선지죠?

④ 옹 이건 다이어네틱스가 주장한 적도 없는 내용이죠? 한 적 없는 말을 까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했습니다.

⑤ 반응정신이 없다! 이거 하나면 다이어네틱스는 모두 무너지죠? 이런 게 적절한 비판이죠.

민간의 채무 계약은 법원에 의해 강제된다. 만약 기업이 채무 상환을 거부한다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 자산의 강제 매각 절차나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국가 채무의 경우는 어떠한가? 전통적으로 국가는 스스로의 동의 없이 외국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 원리에 의해 채무의 강제 집행으로부터 보호되어 왔다. 국가의 상업적 거래에는 주권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지만, 여전히 국가 채무의 이행은 법원을 통해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

민간의 채무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국가 채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되고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 결국 화제는 국가 채무와 관련된다는 것까지 잡아내면 되겠네요. ‘주권 면제 원리’라는 개념의 정의를 잡고 이 개념이 최근의 국가 채무에 적용된다는 것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국가 채무의 이행을 법원을 통해 강제하기가 어렵다면, 돈 빌린 국가가 배째라고 하면 어떡하죠? 분명히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 부분을 기대하면서 계속 읽어 봅시다.

이러한 까닭에 많은 경제학자들은 국가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나 구제 절차가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채무가 상환되는 이유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답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의 출발은 이튼의 고전적 가설이다. 그는 GDP가 감소할 때 채무국이 해외 차입 이외의 방식으로 GDP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이 신용시장에서의 영구적인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신용시장에 다시 접근할 수 없게 된다는 위험이 채무 상환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았다.

안 값으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을 기대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이 갚는 이유’가 핵심이네요. 오 신기합니다. 주권 면제의 원리 때문에 안 갚아도 될 것 같은데 국가들이 갚는 이유! 이게 이 지문의 화제인가봐요. 첫 번째는 ‘이튼의 고전적 가설’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나왔으니 그 주장을 봐야할텐데, 이 사람의 주장은 간단해요. 채무불이행이 신용시장에서의 영구적인 배제를 의미하기에, 즉 돈을 안 갚으면 다른 나라가 앞으로 돈 빌려주지도 않고 빌리지도 않고 하니가 갚는다는 거죠. 그럴듯합니다. 그쵸 아무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도 신뢰를 잃으면 이득볼 게 없으니가 갚는다는 거죠! 뭐 당연해보이는데, 분명 다른 것도 나오겠죠? 공통점/차이점 잡을 생각하면서 계속 읽어 봅시다.

이후 이 가설은 두 가지 점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하나는 GDP가 감소할 때 해외 차입이 충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는 가정에 대한 비판이었다. 불황에 대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할 경우에는 불황 시 충수요 유지를 위한 해외 차입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므로 신용시장에서 배제하겠다는 위협의 효과가 약화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채무불이행 시 신용시장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는 가정에 대한 비판이었다. 일단 채무불이행이 일어난 후에는 채권국의 입장에서 영구 배제보다 신용거래 재개가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증 자료도 이튼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 <지난 30년 동안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국가들은 빠른 시간 내에 국제자본 시장에 다시 접근할 수 있었다.> 채무불이행 이후 자본시장 접근이 배제되는 기간은 1980년대에는 평균 4년이었으며, 이후에는 2년 이내로 더 짧아졌다.

다른 걸 바로 설명하기 전에 이튼의 고전적 가설을 까주면서 시작합니다.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 비판받는데, GDP 감소시 해외 차입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고 채무불이행을 해도 신용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 말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결국은 이튼의 주장 전부를 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튼의 주장 외에 다른 주장이 분명 등장하겠죠? 기대하면서 읽어 봅시다.

이튼 이후의 연구자들은 이튼 가설의 가정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새로운 가설을 구축하려고 하였다. 이 가설들은 대략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가설은 채무 상환의 이유를 무역 제재나 자산 동결 같은 채권국의 직접적인 제재에서 찾는다. 둘째 가설은 차입 비용의 상승 같은 신용시장의 반향을 우려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셋째 가설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국의 국내 경제에 나타나게 될 피해에 주목한다.

이제부터 그 시도가 등장합니다. 총 세 가지의 가설인데, 채권국의 직접적인 제재, 신용시장의 반향 우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해 등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납득이 안 가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줄 테니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증 작업은 채무불이행 이후 가해진 제재의 효과와 국내 경제적 피해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채권국의 직접적 제재 효과는 주로 무역량의 감소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다. 실제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국가들에서 무역량이 감소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하지만 무역량 감소 기간이 3~4년 정도로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무역 제재 위협이 채무 이행의 이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자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려면 무역량의 감소 정도를 측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왜? 몰라도 돼요!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채권국이 무역 제재를 넣어서 (마치 지금 일본이 한국한테 하는 것처럼..) 무역량이 감소했구나~ 정도로 이해해주면 더 베스트겠죠.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네요. 무역량 감소 기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신용시장에서의 평판 효과는 차입 금리의 높낮이를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다. 1997~2004년의 자료에 기초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채무불이행 이후 1년 동안은 가산 금리가 4% 포인트 상승했지만 2차년도에는 2.5% 포인트로 낮아졌으며, 3차년도 이후에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다.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가산 금리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빠르게 하락한다는 점에서 신용시장 평판 하락이 채무 이행의 이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 가설 역시 차입 금리의 높낮이 측정으로 알 수 있는데, 이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뭐 다 안 된다고 하네요;; 결국 공통적으로 자료를 통한 ‘계량적 분석’으로 가설의 적절성을 따지고 있고, 모두 나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흐름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단순한 지문이니 여러분 모두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끝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국내 경제적 피해 여부는 GDP 증가율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다. 최근의 실증 연구들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은 GDP 증가율을 약 0.6% 포인트, 은행 위기를 동반할 경우에는 2.2% 포인트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채무불이행 발생 1년 이후부터는 채무불이행이 GDP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시적 GDP 증가율 하락도 영구적인 손실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GDP 감소를 초래하는 구체적 경로가 밝혀진다면 이 가설의 설명력은 더 커질 것이다.

마지막 셋째 가설은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애도 GDP 증가율 하락이 그리 오래 가지 않기는 하지만 잠깐이라도 떨어지면 큰 손실일로 일리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의 보완만 거치면 이 가설의 설명력은 더 커질 거라고 해요!

리트 지문이라지만 화제만 잡고 비교되는 포인트만 인지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지문이었습니다. 경제라고 쫓지 마시고, 경제에 대해 두려움이나 약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여기 나오는 용어들을 모두 하나하나 공부해보세요. 인터넷에 물어보면서 궁금증을 해소하다보면 경제가 아주 친숙하게 느껴질 겁니다.

4. ③

① 이 글에는 총 4개의 가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설 모두 공통적으로 ‘채무불이행하면 경제적으로 손해보니까 갚는 거야!’라고 하고 있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국가들이 채무를 꼭 갚는 이유, 정확히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기억이 안 나면 각 가설의 정의를 보면서 판단하셔도 됩니다.

② 국가 채무의 이행이 법적으로 강제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이 돈을 갚는 것! 이게 이 지문의 화제였습니다.

③ 고전적 가설의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채무국을 신용시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무서워서 채무국이 돈을 갚는다는 게 고전적 가설의 정의인데, 이걸 비판하는 논리가 바로 ‘채권국이 채무국을 배제하면 자기들도 손해이다.’였죠? 그럼 3번 선지의 내용은 고전적 가설을 비판하는 내용이지 고전적 가설에 대한 내용이 아니네요. 각 개념의 정의와 비판으로 이루어지는 화제의 흐름을 잡고 있었다면 쉽게 고를 수 있겠네요.

④ 채무불이행에 대한 경제적인 직접 제재 수단? 고전적 가설을 비판하는 ‘첫째 가설’의 정의가 ‘채권국의 직접적인 제재’였죠. 간단하게 맞는 선지네요.

⑤ 채무국의 신용 상태가 반영되는 시장 메커니즘이 존재하니까 고전적 가설에서 신용 시장에서의 영구적 배제를, 둘째 가설에서 신용시장의 반향을 이야기한 것이겠죠. 각 개념의 정의 체크! 기본 중의 기본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5. ④

- <보기>의 그래프들을 먼저 정리해보면, 0에서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y축들을 살펴보니 모두 지문에 나온 가설들과 관련이 있네요. 하나하나 판단해 봅시다.

ㄱ. 고전적 가설의 타당성을 약화하려고 묻고 있습니다. 일단 고전적 가설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봐야겠죠? ‘신용 시장에서 배제되므로 갚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를 보면, 해외 자본 유입이 채무불이행 3년차를 기점으로 다시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신용 시장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므로 애는 (가)의 타당성을 약화하겠네요.

ㄴ. 역시 첫째 가설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채권국의 무역 제재 같은 직접적인 제재’입니다. 그런데 채무불이행 이후로 수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네요? 그럼 첫째 가설의 타당성도 약화되었습니다.

ㄷ. 둘째 가설은 ‘차입 비용의 상승’과 관련된 것이었네요. 근데 ‘가산 금리’는 둘째 가설을 비판하는 부분에서 등장한 것이었죠? 가산 금리가 정확히 뭔지, 이거랑 차입 비용이 무슨 상관인지 등은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지문을 제대로 읽었다면 둘째 가설 부분으로 돌아가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으로 돌아가 보니, 가산 금리가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졌다는 게 둘째 가설을 ‘비판’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다)의 그래프 역시 높아졌다가 낮아지죠? 그럼 둘째 가설의 타당성을 약화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ㄹ. 셋째 가설은 GDP같은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보니, GDP 증가율이 눈에 띄게 하락했네요. 지문에서도 이걸 분명히 ‘영구적인 손실’이라고 했으니,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셋째 가설의 타당성은 강화될 것입니다.

화제를 잡고, 개념의 정의를 잡으며 비교되는 포인트를 인지하는 것.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내용을 얻을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철학적 근대는 감성의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이성적 자아를 정초한 데카르트에서 출발하여, 주체뿐 아니라 객체의 세계까지도 선험적 이성의 현상태로 규정한 독일 관념론에 이르러 완결된다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시작과 끝만 보고 이 시대 전체를 이성지상주의의 단선적 질주로 일반화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왜냐하면 근대 철학의 진행 과정에는 이성의 독주에 맞서 감성에 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자 한 다양한 사조들 역시 유의미한 반대 노선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철학적 근대에 대한 지문입니다. ‘데카르트’에서 ‘독일 관념론’으로 이어지는 게 철학적 근대라는 개념의 정의네요. 데카르트와 독일 관념론의 주장 및 정의는 ‘이성’과 관련되어있구요! 이 정도 정의 체크는 이제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죠? 보아하니 철학적 근대라는 게 이성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글쓴이는 ‘감성’ 역시 근대 철학의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문에선 분명히 이러한 이성에 맞선 감성의 도전을 다루겠네요. 이걸 기대하면서 읽어 봅시다.

‘새로운 신화학’이라는 사상운동은 이러한 근대 철학의 진행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중 1913년에 발견된 후, 후일 ‘독일 관념론의 가장 오래된 체계 강령’(이하 「강령」)으로 명명된 18세기 말의 작자 미확정 텍스트는 단연 흥미를 끈다. 왜냐하면 이성지상주의의 결정판으로 불리는 것이 독일 관념론인데, 그 사조의 출발점에 위치하는 이 글에서는 오히려 사 못 다른 입장이 개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로운 신화학’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애는 근대 철학의 진행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신화학’이라는 정보가 왜 나왔는지를 생각하셔야 해요. 왜 나왔나요? 그렇죠. ‘이성에 대한 감성의 도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지문의 원래 텍스트는 아래와 같았어요. (제가 바꾼 버전과의 차이점을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근대 철학의 진행 과정에는 이성의 독주에 맞서 감성에 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자 한 다양한 사조들 역시 유의미한 반대 노선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철학적 근대는 어떤 곡절을 거쳤기에 그러한 귀결에 이르렀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는 데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신화학’이라는 사상운동이다. 그중 1913년에~

밑줄 친 부분이 제가 삭제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물음-답변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 지문의 내용을 훨씬 이해하기 쉽고, ‘새로운 신화학’이라는 개념이 위의 물음, 즉 이성vs감성의 구도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확실히 인지되죠. 하지만 요즘 수능 비문학에서는 이러한 ‘이해의 연결고리’를 없애려는 시도가 잦습니다. 19학년도 9평 ‘STM’ 지문이나 19학년도 수능 ‘법률 효과’ 지문이 대표적인 예시죠. 여러분은 이런 연결고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결국 지문의 내용이 다 이어진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그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신화학’과 관련된 ‘강령’이라는 텍

스트가 감성과 관련이 있나봐요. 감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보시다.

「강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글에서 강하게 감지되는 실러의 정치 미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세계여, 그대는 어디에 있는가? 다시 오라!” 라고 외치는 실러처럼 「강령」의 저자도 고대 그리스에 건줄 수 있는 충만한 미적 차원의 문화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실러의 이러한 생각은 일차적으로는 공포 정치로 극단화된 프랑스 혁명과 인간의 소외가 만연한 시민 사회에 대한 실망에서 나왔으며, 근본적으로는 혁명의 사상적 모태인 계몽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 의식에서 비롯된다. 그가 보기에, 계몽주의는 추상적 지성의 계몽에만 정도되어 인간의 소중한 정신 능력들의 조화를 파괴했기 때문에 혁명의 과격화는 필연적이다. 반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유기적 조화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의 심성이 감성과 이성의 조화로운 미분리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실러는 현실 정치 영역에서 참된 인륜적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미적 차원의 문화 건설이 선행 조건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인간 심성 자체의 미적 교육, 즉 감성적 충동과 이성적 충동을 화해시키는 ‘유희 충동’의 계발을 구체적인 전략으로 제시한다.

이 ‘강령’이라는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러’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실러’와 ‘강령’ 모두 감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실러라는 사람의 주장을 먼저 설명해주는데, 계몽주의를 비판하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을 칭찬하며 ‘유희 충동’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감성’을 강조하고 있네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정보들이 결국 ‘감성’을 중시한다는 걸 가리키고 있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려운 말들에 현혹되어서 그들을 완벽하게 곱씹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의 역할을 생각하셔야 해요. 모두 ‘감성’을 강조한다는 말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강령」의 저자는 이러한 정치 미학적 노선을 발전시켜 새로운 신화학이라는 모델을 제안한다. ‘새로운’이라는 표현이 시사하듯, 그가 지향하는 이상은 계몽을 원천 무효화하는 신화학이 아니라 이성과 감성의 화해, 즉 신화학을 통해 참된 모습으로 변용된 계몽이다. 실러가 소망하는 아름다운 세계의 재림처럼 그가 지향하는 신화학 역시 계몽의 미적 고양을 핵심으로 한다. 더 나아가 「강령」의 저자는 이러한 노선을 무정부주의적 방향으로까지 극대화하여, 신화학이라는 미적 차원의 문화를 참된 현실 정치의 선행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아예 국가의 종식을 통해 이르러야 할 궁극적인 목표 지점으로 구상한다.

강령의 저자는 실러의 주장을 발전시켜서 ‘새로운 신화학’을 제시했는데, 이 이상은 결국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강조하는 것이네요! 계몽이라는 이성에 몰두한 내용이 (실러의 주장 체크하면서 계몽주의에 대해 파악했죠?) 미적 고양을 해야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감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건 생각해주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나아가서 이런 미적 차원의 문화를 무정부주의로까지 연결하고 있네요. 사람의 주장 체크! 이 기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적 절대주의로까지 극단화된 노선에서 출발한 독일 관념론은 이후 사상가들이 다다른 그 최종판에서는 근대 초기보다도 훨씬 강화된 이성지상주의로 전환된다. 이러

한 전환은 과거의 신화적 세계와 당대의 국가적 삶의 양식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서 비롯된다. 즉 근대의 정치적 양상이 이 제는 상실의 아니라 획득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견 아름다워 보이는 고대에서는 오히려 절대 소수의 이익을 위한 절대 다수의 억압이 자행되었고, 시민 사회를 거쳐 형성된 근대의 입헌적 질서에서는 다수의, 나아가 만인의 보편적 자유가 구현된다.

이렇게 감성을 강조하던 독일 관념론은 후대로 가면서 훨씬 강화된 이성지상주의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변화'가 생겼네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경우에는 반드시 무언가 '변화'하는 것이 있으니 그 변화를 인지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성지상주의로 전환되었나요? 근대의 정치적 양상이 상실의 아니라 획득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래요. ??? 뭔 개소리죠? 좀 더 읽어 보니 근대의 입헌적 질서 하에서는 뭐 보편적 자유가 구현된다... 이런 말이 있네요. 자유를 획득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으나 이런 이유를 통해서 감성의 강조가 이성의 강조로 바뀌었다! 이게 핵심이겠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입장의 근거에는 세계의 전체 과정이 자유로운 이성의 자기실현 과정에 속한다는 형이상학이 작용하고 있다. 즉 역사란 태초의 근원적 원리인 선형적 이성이 현상계에서 실현되는 거대한 과정에 포함되는 하나의 하위 범주이기 때문에, 감성이 지배하는 신화적 세계가 지양되고 이성이 지배하는 시민 사회와 국가 체제가 출현하는 것은 정당하고도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화와 같이 미적 차원에 속하는 것은 정신사의 미발전된 초기에만 인간 심성을 도야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 이성의 전진을 통해 도달한 시대에 다시 미적 이상향을 꿈꾸는 것은 계몽을 고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의 실현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자 이 문단을 비롯해서 이 지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말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어휘 자체도 쉽지 않고, 결국 '이성'이 근대에 중요하고, 감성은 정신사의 미발전된 '초기'에만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을 되게 어렵게 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 어휘는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말이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 하고 싶은 말, 여기 나오는 정보의 역할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지문은 '감성'에서 출발하여 근대의 정치 변화와 함께 '이성'이 강조된 것이 근대 철학의 발전 과정이라는 게 핵심인 지문이었네요.

7. ②

① 양자가 각각 부분적 타당성을 지닌다? 이 지문의 흐름은 감성에서 이성으로의 '전환'입니다. 절충하는 내용이 나온 적은 없어요.

② 이성지상주의에 대한 반대 노선, '감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신화학'이 도전했고 이 도전의 근거인 '감성과 관련된 정치적 노선'을 재해석했으며 마지막엔 더 강화된 이성지상주의로 '전환'되었으니 완벽한 정답 선지네요. 지문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며 읽었다면 아주 쉽게 답으로 골랐겠네요.

③ 이성지상주의의 부적절성이 입증된 적은 없어요. 오히려 감성을 중시하는 것의 오류가 발견되었죠.

④ 중립적 이론 아니라니까요! 완전한 전환이 핵심!

⑤ 이걸 좀 낚일 수도 있는 선지인데, 핵심은 '훨씬 더 강한' 이성지상주의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것이 아니에요.

8. ①

- '실러'와 '강령의 저자'를 비교하라는 문제네요. 기본적으로 감성을 중시한다는 공통점, 정치적 내용에서의 미세한 차이점 등을 인지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선지 판단이 안 되면? 바로 그들의 '주장'으로 돌아가야겠죠. 공통점과 차이점은 주장으로부터 나오니까요.

① 실러는 현실 정치를 위한 미적 교육(유희 충동의 정의) 주장했고, 강령의 저자는 무정부주의까지 나아간 새로운 '신화학'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 그 자체네요. 바로 정답.

② 독일 관념론과 계몽주의는 모두 '이성'을 강조하는 개념들이었습니다. (기억이 났으면 좋겠지만, 기억이 안 났더라도 돌아가서 확인할 수는 있겠죠?) 그럼 '감성'을 강조하는 실러와 강령의 저자가 이걸 위한 무엇인가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③ 계몽주의는 이성을 강조하는 거라니까요! 이걸 지속적으로 완성한다는 건 말도 안 되겠죠? 거기에 강령의 저자 역시 계몽주의의 '근본적 청산'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성+감성, 즉 '계몽주의의 미적 고양'이 강령의 주장이에요.)

④ 애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1번을 답이라고 한 상태에서 이 선지를 보면 떠올릴 수도 있어요. 미적 차원의 문화 건설은 둘 모두 강조한 내용이니깐요. 그런데 '궁극적 목표'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지 각 주장을 다시 보니, 실러는 미적 차원의 문화 건설이 '선행 조건'이라고 했네요! 그럼 이 선지는 틀렸죠? 강령의 저자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종식을 통해서 미적 차원의 문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맞는 말이고요. 충분히 헛갈릴 수 있지만, 답으로 고르려면 명시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선지를 '그렇듯한데?'라고 하면서 골랐으면 반성하세요.

⑤ 미적 절대주의요? 이건 감성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실러도, 강령의 저자도 동의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5문단에서 '이렇게 미적 절대주의로까지~'라고 했네요. 잉 그럼 강령의 저자가 주장한 '국가의 종식을 통한 미적 차원의 문화 건설'이 미적 절대주의의 정의인가봐요. 그럼 미적 절대주의는 강령의 저자가 주장한 '무정부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러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죠? 이렇게 지워도 되고, '인류적 공동체'라는 것은 실러의 주장이지 강령의 저자가 주장한 것이 아니므로 지워도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각 대상의 정의, 즉 여기서는 '주장'을 제대로 체크하는 것이었어요.

9. ⑤

- '독일 관념론의 최종판'의 입장에서 '새로운 신화학', 즉 강령의 저자를 비판하라고 합니다. 각 주장을 정리하고, 그 주장을 바탕으로 까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독일 관념론의 최종판 : 근대 정치는 자유로운 이성의 자기실현 과정이므로 미발전된 시기이나 유효하던 감성을 근대에 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강령의 저자 : 감성이 중요하고, 국가의 종식을 통해 미적 차원의 문화를 건설해야 한다.

아마 ‘감성은 옛날에나 통하던거야!’ 혹은 ‘지금은 이성을 이야기해야해!’ 정도로 비판하겠죠. 이거 찾으러 가 봅시다.

① 근대 사회가 초래한 ‘만인에 대한 억압?’ 이거 독일 관념론이 이야기한 ‘고대’의 정의 아닌가요? 이걸 왜 근대로 끌어들이나요. 한 적 없는 말로 비판하고 있는, 적절하지 않은 비판입니다.

② 이성에 의거하여 복원? 강령의 저자가 언제 이런 말을 했나요. 한 적 없는 말을 비판하고 있는, 적절하지 않은 비판입니다.

③ 이성의 전횡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간과? 말이 좀 어렵지만 핵심은 이성을 까고 있는 거죠? 아니 이성을 좋아하는 독일 관념론의 입장에서 감성 측을 비판해야하는데, 왜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있나요.

④ 감성주의적 이상 실현 역시 ‘독일 관념론’의 주장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장으로 상대를 비판해야해요!

⑤ 이미 극복된 과거, 즉 감성을 중시하던 고대 시절을 모범으로 삼아 ‘감성’을 주장하는 것은 ‘이성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완벽한 비판이네요. 각 주장만 잘 잡아도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10~12] -2011LEET ☆☆☆

음악에서 개별적인 음 하나하나는 단순한 소리일 뿐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 음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음들은 조화로운 방식으로 결합된 맥락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맥락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음악의 기본적인 요소인 음정과 화음, 선율과 화성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음악 지문입니다. 음악 중에서 ‘음들의 조화로운 방식으로 결합된 맥락’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쵸 음 하나하나의 의미가 없지만, 그들이 모이면 의미가 생기는 거죠! 이걸 ‘알기 위해서’ 음정, 화음, 선율, 화성이라는 개념을 알아보자고 합니다. 이제부터 저 4가지 개념을 설명하겠지만, 핵심이자 화제는 ‘음들의 결합된 맥락’이에요. 이게 저 4가지 개념 이해의 ‘목적’이니깐요! 자 그럼 일단 저 개념들 이해하러 가 봅시다. 음들의 결합된 맥락은 잊지 않은 상태로!

떨어진 두 음의 거리를 ‘음정’이라고 한다. 음정의 크기(1도~8도)와 성질(완전, 장, 단 등)은 두 음의 어울리는 정도를 결정하는데, 그에 따라 음정은 세 가지, 곧 <완전음정(1도, 8도, 5도, 4도), 불완전음정(장3도, 단3도, 장6도, 단6도), 불협화음정(장2도, 단2도, 장7도, 단7도 등)으로 나뉜다.> 여기서 ‘한 음의 중복’인 완전1도가 가장 협화적이며, <완전4도 <도-파>는 완전5도 <도-솔>보다 덜 협화적이다.> 불완전음정은 협화음정이기는 하나 완전음정보다는 덜 협화적이다.

먼저 음정입니다. 음정과 음정의 크기&성질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딱 잡아 놓고, 완전음정, 불완전음정, 불협화음정 등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 표시한 부분이나 어떤 음이 어디에 있는지 뭐 그런건 굳이 외우거나 꼼꼼히 읽을 필요가 없어요. 저런 걸 기억하기도 힘들뿐더러, 그냥 문제풀 때 돌아와서 확인해도 충분할 정보들이니까요.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는 수직적인 음향보다는 수평적인 선율을 중시하는 선법 음악이 발달했다. 선법 음악은 음정의 개념에 근거한 다성부 짜임새를 사용했는데, 이는 두 개 이상의 선율이 각각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선율과 선율 사이의 조화가 음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위적 개념에 근거한 것이었다. 따라서 각각의 선율은 모두 동등하게 중요했으며, 그에 반해 그 선율들이 만들어 내는 수직적인 음향은 부차적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갑니다.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준 정보를 토대로 화제의 흐름을 만들어가나 봐요. 이 시대는 ‘선법 음악’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선법 음악의 정의, 대위적 개념의 정의, 선율이 중요하고, 음향이 부차적이었다는 이 시대의 특징! 이런 걸 체크하면서 가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시대별 내용도 모두 ‘음들의 맥락’이라는 화제와 관련될 것이라는 생각은 가진 채로 가셔야 합니다!

중세의 선법 음악에서는 완전하게 어울리는 음정을 즐겨 사용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완전음정만을 협화음정으로 강조하면서 불완전음정과 불협화음정을 장식적으로만 사용했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불완전음정인 3도와 6도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16세기 대위법의 음정 규칙에서는 악보 (가)의 예가 보여 주듯이 음정의 성질에 따라 그 진행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예를 들면 7도의 불협화적인 음향이 ‘매우’ 협화적인 음향인 8도로 진행하기 전에 ‘적당히’ 협화적인 음향인 6도를 거치도록 했는데, 이를 통해 선법 음악이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음향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도-3도-1도의 진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중세의 선법 음악에서는 완전음정만을 협화음정으로 강조했는데, 르네상스 시대에는 불완전음정을 사용하는 ‘변화’가 생겼다고 해요. 이런 차이점, 즉 변화 양상 자연스럽게 체크해주시고, 그 변화를 설명해주기 위해 예시를 들어주고 있으니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핵심은 완전음정들 사이에 불완전음정을 추가해서 자연스러운 음향을 표현했다! 라는 거네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선율, 음정 등을 이용한 음들의 조화 속 맥락을 설명하고 있네요. 결국 ‘조화 속 맥락’을 설명하는 게 이 지문의 핵심이라는 것! 이걸 잡을 수 있어야 정말 지문을 잘 읽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불완전음정 3도가 완전5도를 분할하는 음정으로 사용되면서 ‘화음’의 개념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음의 결합을 두 음에서 세 음으로 확장한 것이다. 예컨대 <도-미-솔>을 음정의 개념에서 보면 <도-솔>, <도-미>, <미-솔>로 두 음씩 묶은 음정들이 결합된 소리로 판단되지만, 화음의 개념에서는 이 세 음을 묶어 하나의 단위, 곧 3화음으로 본다. 이와 같이 세 음의 구성을 한 단위로 취급하는 3화음에서는 맨 아래 음이 화음의 근음(根音)으로서 중요하며, 그 음으로부터 화음의 이름이 정해진다. 또한 이 근음 위에 쌓는 3도 음정이 장3도인지 단3도인지에 따라 화음의 성격을 각각 장3화음, 단3화음으로 구별한다. 예를 들면 완전5도 <도-솔>에 장3도 <도-미>를 더한 <도-미-솔>은 ‘도 장3화음’이며, 단3도 <도-미♭>을 더한 <도-미♭-솔>은 ‘도 단3화음’이다. 화성적 음향이 발달해 3화음 위에 3도를 한 번 더 쌓으면 네 개의 음으로 구성된 화음이 생기는데, 이것을 ‘7화음’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위의 <도-미-솔>의 경우 <도-미-솔-시>가 7화음이다.)

이번엔 ‘화음’입니다. 화음의 핵심은 음의 결합이 세 음으로 확장된 것이네요. 3화음, 근음, 7화음 같은 개념의 정의를 잡아주면 됩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 ‘3도를 한 번 더 쌓으면’과 같은 말이 특히 그렇죠? 3도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쌓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이해하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문제를 풀 때는 이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해야하지만... 수능이었다면 조금이라도 더 친절하게 설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화음’이라는 개념, 음들의 조화라는 맥락을 만드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성 음악은 이러한 화음의 개념에 근거해서 발달한 것이다. 수평적인 선율보다 수직적인 화음을 중시하는 양식으로 르네상스 시대 이후 등장한 조성 음악에서는 복합층으로 노래하던 다성부의 구조가 쇠퇴하는 대신 선율과 화성으로 구성된 구조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선율이 화음에 근거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평적인 선율 안에 화음의 구성음들이 ‘내재’한다.

이런 화음이 등장하면서, 이번엔 ‘조성 음악’이 발달합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 등장한 조성 음악의 정의는 ‘다성부 쇠퇴, 선율+화성의 구조 등장’이네요. 그리고 수평적인 선율 안에 화음의 구성음들이 ‘내재’하구요. 뭐라고 하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게 조성 음악이다!

조성 음악에서 화음들의 연결을 ‘화성’이라 한다. 말하자면 화성은 화음들이 조화롭게 연결되어 만들어 내는 맥락을 뜻한다. 악보 (나)가 보여 주듯이 조성 음악에서는 5도 관계에 놓인 세 화음이 화성적 맥락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음보다 5도 위의 ‘솔’, 5도 아래의 ‘파’를 정하면, <‘도’가 으뜸음이 되며 ‘솔’은 딸림음, ‘파’는 버금딸림음이 된다.> 이 세 음을 근음으로 하여 그 위에 쌓은 3화음이 ‘주요 3화음’이 되는데, 이를 각각 으뜸화음, 딸림화음, 버금딸림화음이라고 한다. 이 세 화음은 으뜸화음으로 향하는 화성 진행을 만든다.

자 이런 조성 음악에서는 ‘화성’을 이용하네요. 선법 음악에서는 ‘음정’을 통해서 ‘선율’을 만드는 조화의 맥락을 추구했는데, 조성 음악은 ‘화음’을 통해서 ‘화성’을 만드는 조화의 맥락을 추구하는군요. 이렇게 읽혀야 합니다. 결국 저 4가지 개념이 ‘조화의 맥락’이라는 화제로 모인다는 거죠! 마지막 문제는 풀지 못하더라도 이런 흐름은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으뜸음, 딸림음, 버금딸림음 같은 개념의 정의도 잡아주면서 (사실 지문 읽으면서 바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세 세한 정보들을 이해하지 못한 걸 아쉬워하기보다, 윗 문단의 흐름을 못 잡은 걸 아쉬워하셔야 합니다. 해냈을 거라고 믿어요!

10. ⑤

① ‘덜 협화적이다.’를 보자마자 2문단으로 가면 되겠죠?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누가 더 협화적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가서 보니 ‘한 음의 중복’인 완전1도가 가장 협화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도>가 가장 협화적이니 <도-솔>은 <도-도>보다 덜 협화적이겠죠.

② 르네상스 시대와 중세 시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바로 ‘불완전음정’, 즉 덜 협화적인 음정의 사용 빈도였죠! 르네상스 시대에 불완전음정을 더 많이 사용하는 ‘변화’가 생겼다고 했으니 맞는 선지네요. 이렇게 차이점, 특히 ‘변화’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③ 2도-3도-1도의 진행을 묻고 있네요. 역시 2문단으로 돌아가서 2도, 3도, 1도가 어떤 음정인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불협화음정-불완전음정-완전음정의 예시로 각각 2도, 3도, 1도가 제시되고 있네요. 그럼 맞겠죠. 이 부분을 기억해서 푸는 게 아니라, 2문단에서 ‘음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흐름의 파악을 통해 해결하는 겁니다.

④ 장3화음과 단3화음의 차이점을 묻고 있네요. 이들의 차이점은? 네 선지 그대로 ‘근음 위에 쌓는 3도 음정’입니다. 이 지문이 ‘음정, 선율’이라는 조화의 맥락 → ‘화음, 화성’이라는 조화의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흐름을 파악했다면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가서 확인할 수 있었겠네요.

⑤ 선지에서 묻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곡의 주요 3화음’을 알 수 없냐고 묻고 있네요.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요 3화음’은 마지막 문단의 조성 음악 파트에서 나온 내용이고, 조성 음악은 ‘화음의 개념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성 음악의 수평적인 ‘선율’ 안에 화음의 구성음들이 내재한다고 했네요.

정리하면, 조성 음악은 ‘화음의 개념에 근거’한 것이고, 이 조성 음악의 수평적 ‘선율’은 화음의 구성음들을 내재하고 있고, 조성 음악에서 화음의 구성음은 ‘주요 3화음’과 관련이 있으므로 화음의 개념에 근거한 선율로 주요 3화음을 알아내는 데 아무런 무리가 없겠네요. 답은 5번.

굉장히 어려운 선지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선지에서 묻는 것’을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이 선지가 조성 음악과 관련된 내용을 묻는다는 걸 캐치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내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충분히 선지를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11. ②

- 선법 음악에서 조성 음악으로의 변화. 이 지문의 흐름 그 자체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탄탄하게 잡아뒀죠? 문제 풀어봅시다.

① 선법 음악에서 음의 재료는 협화적 음정과 불협화적 음정 모두였습니다. 협화적 음정 하나에서 불협화적 음정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틀렸고, 조성 음악에서는 협화적 음정과 불협화적 음정과 같은 ‘음정’의 개념이 아닌 세 음의 조화를 추구하는 ‘화음’의 개념을 중시하므로 틀린 선지네요.

② 대위적 양식은 선법 음악의 핵심이었습니다. 애의 정의는 ‘선율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음정을 통해 선율과 선율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죠? 조성 음악에서는 ‘복합층으로 노래하던 다성부의 구조가 쇠퇴하는 대신~’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었구요.

연결해봅시다. 대위적 양식은 선율의 독립성. 조성 음악은 다성부의 구조 쇠퇴. 그리고 묻는 것은 ‘조성 음악에서 선율의 독립성이 쇠퇴되었는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할 정보는? 그렇죠. 대위적 양식과 다성부의 구조 간의 관계겠죠. 만약 대위적 양식과 다성부의 구조가 같은 말이라면 이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잖아요.

다시 한번 대위적 양식의 정의를 확인해보니, ‘다성부 짜임새’의 근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 둘은 같은 말이었어요! 그럼 이 선지가 정답이네요. 이렇게 ‘선지에서 묻는 것 확인 → 알고 있는 정보와 찾아야 할 정보의 연결 → 결론 내기’가 문제풀이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는 것. 잊지 맙시다.

③ 선법 음악에서 수평적인 선율을, 조성 음악에서 수직적인 음향을 강조했습니다. 각 개념의 정의만 제대로 잡았어도 되네요.

④ 선지에서 묻는 것은 ‘화성적 맥락으로 전환되면서 3도 관계의 화음들이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화성에 대한 부분으로 돌아가서 확인해보니, 조성 음악에서는 ‘5도 관계’에 놓인 세 화음이 화성적 맥락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3도 관계의 화음들이 역할을 했다는 건 틀린 선지네요. 이걸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선지에서 묻는 것(화성)을 바탕으로 돌아갈 수는 있어야 합니다.

⑤ 화성의 선율의 결과이다? 그럼 선율이 중요하고, 화성은 부차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선법 음악에서 강조하던 내용입니다. 답이 되기 힘드네요.

12. ⑤

- 일단 이 문제는 수능 수준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어찌보면 조금 과한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예요. 만약 제 해설의 흐름처럼 이해하고 해결하셨다면 베리굿이고, 못했더라도, 심지어 이 해설을 아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앞의 두 문제를 푸는 과정에 더 집중해주세요. 일단 시작해봅시다.

‘도’가 으뜸음이고, 한 마디(‘별이/빛나는밤에/그대/빛나는구나’가 각각 한 마디겠죠?)에는 하나의 화음만 쓴다고 합니다. <보기>에서 이 이상 얻어 내기는 힘들어 보여요. 선지로 가 봅시다.

① ㉠의 화음에 ‘미’가 내재되어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일단 ㉠에는 ‘미’가 없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차분하게 묻는 것을 생각하며 따라가 봅시다. ‘화음’을 묻고 있으니 조성 음악과 관련될 것이고, 조성 음악의 선율 안에는 화음의 구성음들이 내재한다고 했죠? ㉠은 ‘도’와 ‘솔’로만 이루어져 있으니 <도-미-솔>의 으뜸화음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엔 모든 화음의 구성음들이 내재할테니 ‘미’ 역시 내재하겠네요. 맞는 선지입니다.

FAQ

Q : ㉠이 ‘도’와 ‘솔’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도-미-솔>의 으뜸화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 이 부분이 과한 추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험장에서 하기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니, 설명을 듣고 그렇구나~ 라고 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지문의 그림 (나)를 보면, 으뜸화음은 ‘도’를 근음으로 하여 ‘도미솔’이 배열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딸림화음의 근음은 ‘솔’이라고 했고, 한 칸씩 띄어서 배열되어 있으니 ‘솔시레’의 형태로 배열되어 있네요. (악보의 배열을 하는 방법 정도는 상식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럼 버금딸림화음은? 근음이 ‘파’라고 했으니 ‘파라도’의 형태로 배열되어 있겠네요!

따라서 ‘도’와 ‘솔’이라는 음들은 으뜸화음의 구성음이고, 이 으뜸화음의 구성음이 한 선율에 모두 내재할테니 으뜸화음을 구성하는 ‘미’ 역시 내재한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기세요. 저도 이 이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뒷북 해설

더 완벽하게 해설하면, 5문단 첫째줄에 나온 화음의 개념을 통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음정 3도가 완전5도를 분할하는 음정으로 사용된 것’이 화음이라는 개념의 출발점이고, 불완전음정 3도는 <도-미>의 구성이며 완전5

도는 <도-솔>의 구성입니다. (5문단에서 예시로 들어주죠?) 그런데 ㉠은 <도-솔>로 이루어져 있으니 완전5도이고, 이를 불완전음정 3도로 분할하기 위해서는 ‘미’가 반드시 내재되어 있어야겠네요. 정말 말 그대로 뒷북 해설입니다. 시험장에서 하기 정말 힘든 생각일 거예요.

② ㉠이 버금딸림 7화음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버금딸림은 ‘파라도’의 형태로 배열된 3화음이었는데, 7화음의 정의는 여기에 ‘3도를 쌓는 것’입니다. 3도를 쌓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수능이었다면 이걸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예시를 통해 추론해볼까요? <도-미-솔>이 7화음이 되면 <도-미-솔-시>가 된다고 했네요. 그럼 주요 3화음을 만드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한 칸 띄어서 배열하는 형태로 가면 7화음이 되는 것이네요. <도-미-솔-(라 생략)시>의 형태니까요. 그럼 버금딸림 7화음이 되면? <파-라-도-미>의 형태가 될 것이고, ㉠에는 이 음들이 모두 있으니 맞는 선지입니다.

너무 어렵다구요? 혹은 원소린지 모르겠다구요? 괜찮습니다. 정상이에요. 누누이 말하지만 앞의 두 문제만이라도 확실하게 이해해 주세요!

③ 이번엔 딸림 7화음이네요. 2번 선지와 같은 방식으로, 딸림 7화음은 <솔-시-레-파>일 겁니다. ㉠에 ‘레, 솔, 파’라는 딸림 7화음의 구성 요소들이 사용되었으므로 맞는 선지네요.

④ ㉠과 마지막 마디 모두 <도-미-솔>이라는 으뜸화음의 구성음들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으뜸화음으로 시작해서 으뜸화음으로 끝나는 건 맞는 말이에요.

⑤ 각 마디의 첫음(솔, 도, 레, 미)가 근음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음의 정의는 ‘화음에서 맨 아래 음’입니다. 으뜸화음의 근음은 ‘도’, 딸림화음은 ‘솔’, 버금딸림화음은 ‘파’입니다. 그럼 근음이 (도, 파, 솔, 도)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애가 답이네요.

이 문제는 ‘도’가 으뜸음일 때의 다양한 화음들, 3화음과 7화음이라는 지문에서 제대로 설명도 안 해준 부분에 대한 과한 추론을 묻고 있습니다. 1, 2번 선지만 제대로 판단할 수 있었다면 3~5번 선지는 조금 쉬웠을 거예요. 너무나 어렵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웬만하면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